

## 반달가슴곰 피해에 대한 보상 만족도 연구

### The Study on Satisfaction of the Damage Compensation caused by the Released Asiatic Black Bear

김보현<sup>1</sup> · 양두하<sup>1</sup> · 이배근<sup>1</sup> · 최현기<sup>1</sup> · 이경재<sup>2</sup> · 김용근<sup>2</sup>

<sup>1</sup>국립공원관리공단 멸종위기종복원센터, <sup>2</sup>서울시립대학교 조경학과

#### I. 서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는 반달가슴곰 복원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주민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피해보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 손해액 전액을 보상해오고 있다. 방사곰으로 인한 피해보상 절차는 피해자로부터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멸종위기종복원센터에서 방사곰에 의한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량을 조사하여 보험사에 통보한다. 보험사에서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손해액을 평가한 후 피해자와 합의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때 보상금액은 피해자가 주장하는 판매가격과 시중에서 유통되는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다. 피해보상에 소요되는 기간은 1~2개월이었으나,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피해발생 건수가 증가하면서 보험료 인상으로 인한 재원확보, 피해보상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피해자의 피해방지 노력 미비 등의 논란으로 인해 피해보상프로그램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피해보상에 대해 관련법규 검토, 해외의 피해보상프로그램 연구 등을 바탕으로 한 합리적인 피해보상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는 반달가슴곰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피해보상을 받은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보상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고 지자체의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피해보상과 피해보상액 기준 등에 대한 의견을 분석하여 합리적인 피해보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 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반달가슴곰을 최초 방사한 2004년 10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방사한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받은 당사자 10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피해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한 개별면접 방식으로 2007년 6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실시하였다. 피해보상을 받은 연구대상자는 총 102명이었으나 설문에 충실히 응하지 않은 9명을 제외한 93명의 설문지를 유효표본으로 이용하였다.

설문조사는 응답자에 대한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로서 성별, 연령, 학력, 소득수준, 거주지 등 사회경제적 특성과 피해보상액을 파악하였다.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한 동의 여부와 피해보상에 대한 만족도 및 이와 관련된 보상금액, 보상절차, 보상시간에 대한 만족도를 어의구별척(리커트척도) 의해 5단계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보험가입을 통한 피해보상 방법에 대한 대안으로 환경부(2006)의 연구결과로 제안된 피해보상심의위원회 설치와 피해보상액은 피해감정액의 80% 수준에서의 보상하는 방안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조사결과는 SPSS WIN 14.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T-test, 상관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 III. 연구 결과

##### 1.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한 의견

반달가슴곰으로부터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대상자들의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해 동의 여부를 5점 척도(1: 매우 부동의 ~ 5: 매우 동의)로 평가하도록 하였다. 분석결과 복원사업에 '부동의' 48.4%, '동의' 32.3%, '보통' 19.4%으로 5점 척도 상 평균 2.78±0.99점으로 중간 값(3점) 보다 다소 낮은 것으

로 나타났다. 복원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받고 있는 주민들은 일반 주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복원사업에 대한 반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2. 피해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반달가슴곰으로 인한 피해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보상금액, 보상절차, 소요시간 등 각 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기 위해 5점 척도(1: 매우 불만족 ~ 5: 매우 만족)로 평가토록 하여 각 단계별 응답비율과 평균값을 계산하였다. 피해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 분석결과 만족 43.0%, 불만족 28.0%, 보통 29.0%로 5점 척도상 평균  $3.14 \pm 0.85$ 점으로 중간 값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는 피해자와 합의에 따라 보상하고 있으나 피해에 따른 반감과 보상에 대한 높은 기대심리, 복잡한 절차 등으로 인해 만족도가 중간 수준에 머무는 것으로 판단된다.

피해보상프로그램에 대한 각 요인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보상금액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35.5%, 불만족 28.0%, 보통 36.5%로 만족한다는 응답자 비율이 다소 높아 5점 척도상 평균  $3.08 \pm 0.84$ 점 이었다. 손해액 100%를 보상해주고 있지만 보상금에 대한 기대심리가 높아 불만족 한다는 의견도 상당부분 존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보상 절차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33.3%, 불만족 37.7%, 보통 29.0% 불만족 한다는 의견이 다소 많아 5점 척도상  $2.96 \pm 0.92$ 점으로 이었다. 이는 피해신고(주민)-현장조사(공단)-보험사통보(공단)-현장조사 및 손해사정(보험사)-보상액 합의-보상순으로 다소 복잡한 절차를 거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보상에 소요되는 시간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 17.2%, 불만족 61.3%, 보통 21.5%로 5점 척도상 평균  $2.52 \pm 0.87$ 점으로 다소 낮게 나타났다. 이는 피해발생에서부터 보상까지 거치는 여러 단계의 절차에서 업무처리

지연되거나 보상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보상금 지급이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3. 피해보상 방안에 대한 의견

보험을 통한 피해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대안으로 환경부(2006)에서 제시한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피해보상과 피해액의 80% 수준에서 보상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주민대표, 지자체, 전문가 등이 참가하는 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 설치를 통한 피해보상프로그램에 대해서 응답자의 50.5%가 동의, 17.2%가 반대, 보통 32.3%로 5점 척도상 평균  $3.32 \pm 0.90$ 으로 찬성하는 의견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전체 피해감정액의 80% 수준에서 보상금을 책정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찬성 31.2%, 반대 59.5%, 보통 19.4%로 5점 척도상 평균  $2.69 \pm 1.11$ 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기대심리는 있지만 피해보상금이 줄어드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반영된 결과라 판단된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지 않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면 주민들이 새로운 제도를 수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피해를 당하는 피해자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피해보상금을 80% 수준에서 보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4. 상관관계 분석

피해보상 만족도에 관련된 설문 항목별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계수를 계산하였다. 피해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와 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요인은 소득수준,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에 대한

Table 1. Compensation satisfaction about bear damage

Item	Compensation Program(%)	Money(%)	Procedures(%)	Period of handling(%)
Very dissatisfactory	1.1	1.1	2.2	5.4
Dissatisfactory	26.9	26.9	35.5	55.9
Moderate	29.0	36.5	29.0	21.5
Satisfactory	43.0	34.4	31.1	16.1
Very satisfactory	-	1.1	2.2	1.1
Mean(5 scale)	3.14	3.08	2.96	2.52
SD	0.85	0.84	0.92	0.87

동의 정도, 보상금액 만족도이었으며, 5%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요인은 보상절차에 대한 만족도로 나타났다. 즉, 피해보상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적인 수준, 복원사업에 대한 공감대, 보상금액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통한 보상과 1% 수준에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요인은 피해액의 80% 수준에서 보상을 실시하는 방안으로 나타나 새로운 제도에 대해 찬성하는 이들은 보상요율의 축소에 대한 우려보다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높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피해액의 80%수준에서 보상을 실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의 보상프로그램에 만족도와 5%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다. 현재 보상프로그램에 만족하고 있는 이들은 새로운 제도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정부에서 피해를 받은 주민들에게 피해보상에 대한 신뢰감을 주었고 지역주민들이 지자체에 대해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교육수준 및 보상금과는 5% 수준에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보상금액을 많이 받았던 계층일수록 보상요율을 낮추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